

#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28강, 고린도전서 12-14장, 영적 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 고린도전서 12-14장 서론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28강, 고린도전서 12-14, 영적 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2-14에 대한 서론입니다.

글쎄요, 1고린도서의 다음 주요 단원인 12-14장부터 시작하는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꽤 멀리 왔습니다. 여기는 28번째 강의이고,  
노트 패킷 번호 14가 있는데, 178페이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이러한 노트를 앞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모든 것을 다 쓰고 차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쎄요, 12-14장은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 때문에 꽤 유명합니다. 178  
페이지의 섹션 요약을 주목하세요.

바울은 영적 은사를 두 가지 관점, 즉 주권자 주님과 사랑의 법에서  
논의합니다. 고린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은사 중 하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이 영성의 궁극적인 시험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은사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은사 목록에서 마지막에 배치된 것 외에도, 12-14장의 전체 주장은 교화와  
사랑이 방언이 아니라 영성의 최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방언은  
교화와 사랑 모두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더 노골적인 은사와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은 이 고린도인들 중 일부에게는  
단조롭고 무색해 보입니다.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서사시적입니다. 그는 레온 모리스가 관찰했듯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12장은 선물 문제를 제기합니다. 13장은 누구나 아는 사랑에 대한 훌륭한 장입니다. 14장은 이러한 선물의 규제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단위이며,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3장은 사후에 생각한 것이나 여담이 아니라 12장과 14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이며, 이 모든 문제를 공동체에 대한 것으로 만들고, 허와 같은 외부적인 명백한 은사를 행사했기 때문에 자신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에 대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

구조적으로 Richard Hayes는 이 장에서 3중 구조를 봅니다.

물론 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꽤 늦게 추가되었고, 운문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장과 구절을 추가하는 것은 대체로 유용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작업을 한 사람들은 항상은 아니었지만 장 구분을 꽤 잘했습니다.

12장, 13장, 14장은 단위, 큰 단위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챕터 구분이 속하는 곳입니다. 12장은 커뮤니티에서 선물의 보완적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선물은 개인적이고 사유화된 항목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장들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신체 은유는 이와 관련하여 주요 표현이 됩니다. 13장은 모든 영적 표현을 지배하는 규범으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조절 원칙입니다. 사랑은 공동체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주의적이지 않지만 개별적인 부분보다는 전체를 봅니다.

그런 다음 14장은 사랑의 우산 아래 은사를 다스리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그 장에서 계속 진행되며, 특히 다스려지는 방언에 대해 다룹니다. 그것이 지금 제시된 문제로 떠오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힌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 많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지위를 높이기 위해 방언을 연습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고린도 공동체에 대해 본 것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정일 것입니다.

178페이지에서 다른 구조적 관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뒤죽박죽인 듯하지만, 여기서 카이아즘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12:1-3에서 예수가 주님이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종종 간과되지만, 12-14장에서 일어나는 일의 프로그램적 페이스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단원을 끝내는 14:37-40을 주목하세요.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장난에서 비유를 사용하자면, 예수가 주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교육받기 위한 것이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누군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괄호의 중간에는, 예수는 주님이시고, 가르침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12:4-30에서 통일과 다양성이 연주됩니다. 12:31-13:13에서 우리는 사랑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중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님,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12 :4-30 일치와 다양성. 14장은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은사에서 어떻게 질서를 정하고 일치를 유지합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13장의 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카이아즘에 대한 합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카이아즘은 구조와 사물이 어떻게 함께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13장의 우선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저 덧붙인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의 중간에 끼어든 귀여운 작은 경건한 글이 아니라, 그것은 공적 예배의 표현을 다루는 관리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건 사소한 구조적인 것들입니다. 대부분은 비교적 명확하고, 우리는 178페이지 하단에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14장은 이제 peri-de로 표시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그 그리스어 구절은 종종 문자 그대로 번역되었지만, 지금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14장 이번에는 바울이 어떤 독창적인 질문이나 그가 응답하는 슬로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명해지지만, 이번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은사의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 처음에, 너무 멀리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이 능동적인 은사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들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점은 신약에서 이것이 언급되고 다루어진 유일한 시간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기능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교회 서적인 에베소서의 목회서는 전혀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마도 고린도전서의 이런 문제들 뒤에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어떤 성찰을 기대할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는 정확히 이런 식으로 공적 예배를 드린 유일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특히 목회적 유형의 글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관찰입니다. 모든 서신은 목회적이지만,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주요한 목회적 측면이 있는 에베소서에는 특히 후반부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구절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79쪽에서 우리는 선물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란 용어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특히, 적어도 서양 문화권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생일이 발전하면서 선물을 받을 때 우리 문화권에서 선물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이란 단어를 들으면 바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언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어떤 면에서 신이 주신 선물이지만 크리스마스 선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 우리 자신의 환경과 문화에서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 장에서는 선물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은 영적 카리스마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에 대한 공급된 용어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흔히 쓰이는 선물이란 단어인 *doron* 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미지화되는지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두 개의 그리스어 용어가 두드러집니다. 단어 *pneumatikos* .

*Pneumatikos* 는 형용사입니다. 그것은 *pneuma*라는 용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pneuma*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영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또한 바람과 호흡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영, 성령을 포함합니다.

pneumatikos 로 표현하면 영적인 몸과 같은 것을 수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광야를 방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영적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사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단어입니다.

xaris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 이것은 명사이지만 은혜와 은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pneumatikos 라는 용어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30번도 안 되지만, 그 중 4개 구절만 있습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이 단어 연구를 하기에 좋은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주로 바울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용어는 고린도전서에 주로 나오는 용어이고 다른 곳에서는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이라는 용어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 용어는 분야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매우 중요해집니다.

네 군데만요. 그런데 그 네 군데는 그리스어 성경에 대한 Bauer-Arndt Gingrich-Danker 사전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가 영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적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좋은 자료 중 하나이고,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보게 될 어떤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의 영역, 소위 은사들과 같은 것.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라는 용어는 pneumatikos , 즉 영적인 것들과 함께 제공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니, 뭔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글썬요, 영어 번역에서 누군가는 영적 은혜와 같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대신 선물이라는 단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이 장의 정의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이라는 단어가 더 나올 것입니다.

12장 1절, 문자 그대로,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남성형이거나 중성일 수 있으므로, 영적인 것들이나 공급된 은사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표현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인 사람, 어떤 면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언급하는 12:2와 3에 비추어 남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고, 이런 더 정교한 주석, 진짜 주석을 읽었다면 거의 모든 구절, 모든 단어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격을 갖춘 학자들이 모이면 사물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카리스마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중성 명사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리스어는 라틴어와 같습니다. 성별 언어입니다.

남성형, 여성형, 중성이 있습니다. 성별은 단어가 나타내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죄를 나타내는 단어는 여성형 단어입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만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요. 영이라는 단어는 중성어예요.

Pneuma는 중성 명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단어는 명사와 형용사로 그 범주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성별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전형적인 성별 관념을 이 그리스어 단어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문법과만 관련이 있고, 성별에 따라 분석되지만, 그것은 문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명사는 은혜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은 신성한 존재, 신성한 활동, 신성한 능력 또는 신성한 은혜의 특별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 두 용어는 합쳐집니다. 로마서 1:11에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고, 그것을 예상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가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pneumaticon charisma, 즉 영적 카리스마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은 명사 charisma를 변형하고, 영적 은사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복수형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단수형이고, 중성보다 더 쉬운 형용사인 영적 은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은 확립될 수 있습니다. 형용사 명사 문자 그대로 영적 카리스마로,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번역을 처리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어를 다루어야 합니다. 좋아요, 선물을 뜻하는 일반적인 그리스어 단어인 doron은 이 선물 목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위의 용어는 거의 보편적으로 선물로 번역되지만, 당신이 그것을 제공하든 카리스마를 그렇게 번역하든, 그리고 때로는 그 용어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그 용어와 함께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영어 번역은 비판적이지 않은 독자의 마음에 텍스트의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당신의 문화적 이해를 취소하세요.

pneumatikon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xarisma ?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맥락에서 영적 은사의 정의는 사실 12장 7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구절이고, 이것을 하나로 모으도록 설계된 구절입니다.

12:7. 이제 각 사람에게 영의 나타남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어집니다. 12:7, 영의 나타남은 문자 그대로이고, 각 사람에게 영의 나타남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어집니다.

여기서 , 표현이 사용되었고, 표현을 수정하기 위해 영을 사용합니다. 소유격 명사는 형용사와 비슷하지만, 두 용어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들과 관련하여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잠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제, 각자에게 영의 현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은사를 설명하고 정의하기 위해 당신이 붙잡아야 할 문구입니다.

그것들은 영의 표현입니다. 이제, 이것 자체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의를 분석할 때, 그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선, 179의 맨 아래에, 영의 표현은 영이 신자들 안에서 실현하는 능력 또는 사역이며, 영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회중의 활동으로 영이 활동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중의 활동은 성경이 영이 강화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영의 열매와 같은 것 말입니다.

당신은 사람으로서 영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이 생성할  
표현을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육신의 일, 만약 당신이 회중에  
들어가서 그런 종류의 것들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육의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본성의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특성을 보면, 영이 생성하는 것들은 증거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나무를 보면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사람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영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중과 사람들과 관련하여 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교적  
언어라고 알려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가 여기서 Ciampa가, 제가 그의 이름을 올바르게  
발음한다면, 그를 만난 적이 없는데, 이것을 주관적 소유격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것은 영이 만들어내는 표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 학생이 아니라면, 그리스어의 소유격은 우리가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매우 생산적인 사례입니다.

그리스어의 많은 부분은 문법에 불과하지만, 소유격은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되며, 매우 해석적입니다. 그리고 소유격은 주관적 소유격과 객관적  
소유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문법적 구성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주관적 소유격은 소유격이 행동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적  
소유격은 소유격이 행동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격이  
무엇인지 안다면, 소유격이 그것을 생산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받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소유격이 그것을 생산한다고 말하고, 영이 은사를 생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행하면서 이것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 글머리 기호. 질문은, 소유격 pneumatikos를 여기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즉, 선물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을 나타내고, 영은 우리의 윤리적 행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나무로 볼 때, 그들은 열매를 봅니다. 좋아요. 아니면 주관적인 것인가요? 즉, 영이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것인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모든 사람이 그것이 주관적이라고 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생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성에 대한 때때로 비판 없는 관점은 영이 우리의 두개골에 와서 말하고 그런 종류의 것들을 촉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영성에 대한 매우 신비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의문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영성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신이 관여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 말은, 그것은 명확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적입니까? 영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성합니까? 육체의 행위와 같은 목록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이거나 육적인 것으로 만듭니까? 종교적 언어는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의미 모두 맥락에 맞을 것입니다.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영은 생산하고, 영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영을 반영하고, 따라서 영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받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어느 쪽으로든 갈 학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세요, 그건 해석입니다. 그리스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인은 우리에게 결정을 내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리스어를 안다고 해서 지구상의 모든 해석적이고 신학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야겠습니다. 그리스어를 안다고 해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언어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도 그리스어도 아닙니다. 해결책을 추구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자체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에 약간의 짐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유격 인용은 영을 대중에게 드러내는 작업에 대해 훨씬 더 객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공 도메인의 현상이 다양한 형태를 띠더라도 활력을 주는 힘과 목적은 하나입니다. 티슬턴.

티슬턴은 이 구절을 각자가 공통의 이익을 위해 영의 현현을 받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다음 글머리. 내가 이야기해 온 영적 언어의 본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의 우산 아래에서, 우리가 영이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영적 목적을 위해 공동체를 강화하는 모든 활동은 종교적 언어로 영에 기인합니다. 때때로 인간이 가진 재능이나 은사 또는 기부금은 인간의 인생 여정의 산물일 수 있지만, 그것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지만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적입니다.

영의 인과관계와 신을 아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일을 하는 우리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신에게 공을 돌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 운전을 하고 있다면, 특히 내가 사는 플로리다 남서부, 운전의 거친 서부에서, 신호등에 도착하면 초록불이 켜집니다.

저는 녹색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사고를 일으키고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물처럼 빨간불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녹색 신호등에다가 가서 신호등에 대한 평소의 비판적 사고를 했다면, 이걸 실행할 바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보고, 보고, 이번에는 경찰차가 보이겠지만,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사이렌, 사이렌, 아시다시피 미국 남부에 있는 소리죠, 두 단어, 사이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듣지 못하지만, 당신은 그를 보고, 멈춰서 사고를 피합니다. 아니면 경찰이 쫓는 차를 보고, 경찰이 그 차 뒤에 막혀 있고, 그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은 멈춰서서 아마도 치명적인 사고를 피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합니다. 하지만 왜 저는 그 사고를 피했을까요? 신의 인도로 피했을까요, 아니면 비판적 사고의 수행으로 피했을까요?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좋은 사람들, 어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빛에 다가갔을 때 생각하지 않고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 우리는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특히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우산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그 생각의 인과관계였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생각의 원인이었는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에게 감사하죠, 그렇죠? 그럼, 영적 표현은 어떨까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랑을 보인다면,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인가요?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문제는 때로는 극도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 신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항상 신에게 공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영적 언어의 본질이라는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일반적으로 읽는 사람은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영적 언어는 은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쓰인 책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찾아보세요, 알겠죠? 이제 계속해 봅시다. 성령은 공동체를 강화하는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줍니다.

180페이지. 영적인 목적을 위해 종교적 언어로 영에게 귀속되지만, 때때로 재능이나 은사는 인간의 인생 여정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가, 회계사, 연설가, 돕고 위로하는 사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기 위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그리고 교회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발전하면서 평생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기 위해, 그러한 인간적 재능을 행사하는 것은 영적 은사가 되고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은사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은사의 신비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는 기능이고, 우산 아래의 기능은 영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영적 청소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은 청소부가 작은 교회의 목사에게 가장 큰 은사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는 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영적 목적은 종교적 언어로 영에 기인하지만, 때때로 재능이나 은사는 인간의 삶의 여정에서 나온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우산

아래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봉사하는 것은 영적 목적과 영적 형성을 위해 사람으로서의 재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다른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매우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표면에 스며든다. 그것은 은유다, 스며든다. 당신은 스며드는 기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가 어렸을 때, 퍼콜레이터는 물이 주기적으로 커피 가루를 통해 스며들어 커피를 만드는 커피 포트였습니다. 그리고 스토브 위에 올려놓는 퍼콜레이터도 있었고, 플러그를 꽂는 퍼콜레이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구적이었고, 요즘에는 퍼콜레이터 대신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은유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역의 한가운데서 그들의 표면을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의 한가운데서 강조한 것을 주목하세요.

오늘은 건조합니다, 실례합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의 결과로 사역의 한가운데서 스며들고, 영적 공동체의 결과적 이미지를 위해. 우리는 영적이며 공동체는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세상에 도달하기 위해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의 영적 은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없으므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80페이지에 있는 이 개요를 주목하세요.

신약성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우리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선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어로 언급한 것처럼 결코 사용되지 않지만, 번역가들이 다음 구성에 대해 제공합니다. 선물이라는 명칭 또는 선물 텍스트에서 그리스어로 지정된 명칭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우선, 형용사 pneumonticus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주로 형용사, 영적인 몸, 영적인 음식, 영적인 노래, 영적인 축복 등으로 기능합니다.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가 형용사라는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즉,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이나 신자를 영적인 사람으로 언급하고 모든 언급은 영성을 신의 말씀과의 상관관계로 봅니다. 그 언급들을 연구해보세요. 고린도서에 세 번, 갈라디아서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모든 맥락은 영적인 사람을 신에게 순종하고 성경적 진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단어 pneumonticus .

이제 , 단어 charisma. 은혜롭게 주어진 것.

은혜, 은총. 로마서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축복과 특권.

고린도전서 7 :7의 독신주의. 독신주의의 은사. 성적 욕망을 갖지 않는 은혜, 따라서 그런 면에서 필요가 없는 은혜. 그것이 은사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은 은혜롭게 주어집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서의 영적 은사는 다른 텍스트에서도 언급됩니다. 이 용어는 로마서 1장 11절에서만 함께 나타납니다. 그곳이 유일한 곳입니다.

위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소위 영적 은사는 영이 신체의 이익을 위해 영적 교회 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특징짓는 신체 내의 기능을 입증하고, 인용하고, 은혜롭게 활력을 불어넣는 신자입니다. 이제 그것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출처에 연결하려고 노력하여 여러분이 저를 넘어서는 권위를 갖도록 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구성 문장으로 삼은 문장인데,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롭게 활력을 얻은 기능은 영이 신체의 이익을 위해 영적 교회 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특징짓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의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이제 은사 목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도 그렇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은사 목록이 네 개 있고, 목록이 아닌 것에 대한 참조가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신약의 목록 문제는 꽤 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목록을 읽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흔할 수 있지만, 신약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리스 작가들은 목록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많은 미덕 목록과 악덕 목록이 그리스 윤리 문헌에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이 나와서 정확히 똑같은 것을 합니다. 저는 영의 열매에 대한 일련의 강의를 하는데, 약 10시간 정도입니다.

보고 싶으시다면, 저의 웹사이트 [www.gmedors.com](http://www.gmedors.com)으로 가서서, teaching 에서 확장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짧은 비디오 시리즈를 가지고 있지만, 그 후에 1시간 분량의 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노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성경이나 성경 학습 세션 중 하나를 하기를 바라지만, 목록은 큰 일입니다. 덕 목록, 악덕 목록,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은사 목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주목하세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 고린도전서 12:28, 또 다른 목록이 있는데, 이 목록들 중 어느 것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전형적이고 몇

가지 동일한 용어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동일하게 순서화되지는 않습니다. 한 목록을 다른 목록과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6~8은 목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본 몇 가지 항목, 다른 몇 가지 항목이 있지만, 에베소서 4장이 매우 다른 목록이라는 것은 거의 무작위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능의 목록이 아니라 사람들,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4장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목록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은사를 받았을까요? 삶과 그 지점까지의 여정으로 은사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가 신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이 신학교에 다녔기 때문이다. 귀엽지 않은가? 좋아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그는 가말리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박사 과정을 밟았고, 아마 12살 때부터 예루살렘에 있었을 겁니다. 그는 철저히 교육받았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칠십인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2성전 유대 문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셨고, 그를 선택하셨으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4:11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의 문맥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몸을 세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일치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록은 네 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목록이 아닌 참조가 몇 개 있습니다.

로마서 1:11에서 우리는 두 용어가 합쳐진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29는 현재 은사의 범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특권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7,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영적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책의 서론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1, 킹 제임스 버전은 은사로 번역하지만 축복이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번역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4:14, 당신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6, 당신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목회서는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고, 디모데 자신의 투쟁이 표면에 드러납니다. 베드로전서 4:10, 선한 청지기처럼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것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다른 목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능한다고 가정하고, 이 명명법을 사용하여 참조하고, 기능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이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182페이지에서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1은 서신의 윤리적 부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서신 대부분이 받은 신학이고 받은 윤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교리와 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은 것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바울의 서신은 모두 반반입니다. 4장이 있다면, 1장과 2장은 신학적 기초가 될 것이고, 3장과 4장은 그것들의 적용, 실천이 될 것입니다.

6장이면 3과 3이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은 에베소서 6장의 후반부에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제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참 흥미롭죠.

저는 이것이 바울의 모델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믿음은 신학이고, 사랑은 윤리이며, 소망은 종말론입니다. 저는 바울의 서신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 모든 것을 통해 통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다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1은 윤리 섹션의 적용을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1-16은 영의 일치와 평화의 유대를 유지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게 뭐죠? 1-6은 일치의 근거이고, 삼위일체는 일치의 모델입니다. 7-16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인, 사람, 임원을 은사로 주신 것이 일치를 이루는 수단이라고 단언합니다.

결국, 당신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는지에 대한 답은 교육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있고, 그들은 지역 사회를 교육하여 지역 사회가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가장 정신 지향적인 종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감정 지향적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활동을 하기 위해 마음을 건너될 것입니다. 글썬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의 능력과 깊이를 파괴한 것입니다.

마음과 활동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둘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표현입니다.

교회를 갖추기 위해 개인을 은사주는 것은 당신이 연합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와의 연결을 통해 교회에서 임무를 완수하도록 은사를 받았습니다. 4:7 바울은 시편 68편을 사용하여 유추적 증거 본문을 통해 은사를 입증하며, 그것은 그리스도론적 꼬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러 가야 할 것입니다.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천을 말합니다 . 에베소서 4:11-16은 사역의 일을 하도록 믿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은사받은 사람들의 그룹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는 전도 홀이 아닙니다. 장비 센터입니다. 들어와서 장비를 갖추고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게 합니다.

미국과 미국 교회의 문화적 발전에서, 많은 부분이 교회를 전도의 전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큰 목적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도했지만, 아마도 우리가 지금 미국 교회에서 겪고 있는 혼란은 교회에서 교육적 목적이 부족한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대형 교회에 다녔고, 대형 교회에서 교육 계획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은 엉뚱한 일요 학교를 합니다. 그들은 일요 학교가 있다면, 회중을 교육하기보다는 느껴지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맞춰진 일요 학교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육 사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꾼을 고용할 자원이 있는 대형 교회에서 수석 목사, 행정 목사, 청소년 목사, 수석 목사, 기혼 목사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제 전 학생들 중 일부는 다다, 다다, 다다. 학자 목사는 어디 있나요? 교육 목사는 어디 있나요?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도록 훈련받은 사람, 아마도 스스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석 목사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그런 범주를 가진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교육 사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담당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 준비는 로마서 12:1, 2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기독교 메시지의 소유권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깊이 있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은 자신을 영속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장비를 갖추기 위해 들어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나갑니다.

이제, 그것들은 목록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훌륭한 책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가 로마서보다 바울 신학에 대해 더 많이 다룬다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언젠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싶다면 Harold Hohner의 주석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HOEHNER. Harold Hoehner. Harold는 Dallas Theological Seminary에서 약 50년 동안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고 있었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학자였으며, 에베소서에 대한 권위 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답이 없는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베이커에서 출판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 대한 해럴드 호너. 그걸 알면 에베소서에서 잘 일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게 될 거고, 게다가 읽기도 편해요.

일부 해설은 단지 참고용이기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 그냥 참고용일 뿐입니다. 이제, Hohner는 확실히 참고용이지만,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다른 해설도 있습니다.

목록에 대한 철학. 이제 목록과 개별 목록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썄요, 우선, 이러한 생각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어진 목록은 거의 완전하지 않으므로, 마치 그것이 당신의 삶의 끝인 것처럼 한 목록의 말을 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록도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주어진 목록이든, 제 생각엔 어떤 주어진 목록에 S를 넣었을 겁니다만, 그 목록은 그 자체의 맥락 내에서 목적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목록은 맥락에 따라 조건지어집니다. 세상에, 정말 훌륭한 목록들이 많죠.

성령의 열매는 훌륭한 목록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7절에는 제가 좋아하는 목록 중 하나가 있는데, 두 장 모두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둘 다 사랑을 마지막에 둡니다. 오, 사실, 열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목록들에는 거대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정의롭고, 일부는 당신에게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디자인을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당신은 양말을 벗을 정도로 디자인된 목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주제의 모든 목록은 비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모든 목록을 살펴봐야 하고, 목록은 없지만 참조가 있는 목록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점에 유의하세요. 4번 항목을 넣으세요. 같은 주제에 대한 모든 목록의 합계가 반드시 완전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퀴즈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들의 타고난 재능이 신약의 목록에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일요 학교 교장이 될 자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소부일 수도 있고, 그들은 그 일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안내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안내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의 선물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비스를 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노래 리더는 선물입니다. 저는 찬양팀이 선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비교는 겁니다.

훌륭한 예배 리더는 은사입니다. 따라서 문화가 변함에 따라 회중의 필요도 변합니다. 따라서 은사는 지역 사회의 필요 범주로 영원히 확장됩니다.

은사가 없다는 것은 신약성서에서 언급을 찾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능한다는 사실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문화권의 많은 교회는 우리가 방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라졌어요. 그 이유 중 일부는 문화와 사람들과의 접근성 때문입니다. 홍콩에서는 고층 빌딩에서 방문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방문하는 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서 공격적이지 않고, 행복해하며,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비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일은 그들을 목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목마르면 마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들이 목마르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것을 보았다.

저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이 있었고, 심지어 사역에서 일한 적도 있는데, 제 상사들이 그런 재능에 대해 정말 재능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들은 그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와 은사와 교회 아래에서 기능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이 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영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면에서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합계가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나아가, 당신의 문화적 맥락에서 당신의 교회를 위한 영적 은사 목록에 무엇을 추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훌륭한 토론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신생 교회이고, 아침 예배를 위해 학교 강당이 재정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신의 선물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실현할 만큼 책임감 있고 재능이 있다는 건 선물이에요. 소리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게 뭐죠? 그건 기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 세트예요. 파워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기술. 이것들은 우리 현재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음악가들. 와우. 재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훌륭한 음악가는 금만큼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목록 철학을 실천해야 하고, 아마도 재능의 본질에 대해 여러분을 오도했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사해 온 이 데이터에 비추어 관찰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182 하단을 보십시오. 우선, 은사는 교회의 활동을 충족시키고 강화하는 기능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기능은 교회의 우산 아래에 있으며, 교회는 성령에 의해 조종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영의 역사와 관련하여 형상화됩니다. 당신은 분석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성령이고 우산 아래의 사물의 자연적 질서가 아니라고 요구할 정도로 긴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 조심하세요.

2a. 어떤 은사는 기적적이며, 따라서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입니다. 어떤 은사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은사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평범한 기능입니다.

격려의 선물. 저는 비판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교사의 일부인 것 같아요.

저는 격려에 그렇게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논문을 평가하고 당신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C급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 고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때문에 혼을 내줄게, 알았지?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사람의 기술과 성격도 이 새로운 영적 맥락에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따라서 영적 은사라고 불릴 수 있다. 3a. 현재 교회에서 기적적인 종류의 은사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논쟁적이다.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텍스트 강의의 마지막에 전체 강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오래된 책이 있는데, 아마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편집자인 Wayne Grudem이 쓴 *Our Miraculous Gifts for Today*입니다. 그 책에는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이 토론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책은 오래되어서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4b.

모든 목록은 맥락에 따라 조건지어지므로, 어떤 목록이나 목록의 전체가 반드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변화된 문화적 조건과 몸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구성하는 것을 계속 확장합니다. 5. 교회는 어떻게 구성원의 은사를 식별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압니까?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 압니까? 무엇보다도, 사역 맥락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회중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앞서서 회중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세운 적이 있는데, 잘 안 되었고, 목사를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재능이 있었지만, 필요한 재능은 없었고, 지금은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자신이 누구인지, 사역을 위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데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많은 책을 쓴 매우 유능한 작가이고, 이 일을 무료로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비행기 요금을 지불하고 그를 숙박시키는 것뿐이고, 그는 그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데, 하지만 이 교회가 그걸 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도움 없이도 안다고 생각하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그들의 공동체가 합쳐져서는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보도록 돕고, 필요한 것을 찾도록 돕고,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찾도록 돕고, 특정 분야에서 향상시키고 다른 분야에서는 충분하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구성원들이 몸 안에서 예배하고 일할 때 어떻게 기능하는지 관찰하여 이를 실현하려면 숙련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회중에서 바쁘게 지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누가 필요의 틈새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실현하는지 보십시오.

비판적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몸이 당신의 재능을 긍정합니다.

당신은 "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결정한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음 단계는 그 회중에게 "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요 학교를 가르치고 싶어서 죽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은사가 있는 교사라고 믿었고, 40명의 학급을 1/4분기 만에 10명으로 줄였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재능 있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재배치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록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십을 인식함으로써. 에베소서 4:11.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교회 표지판을 봤는데, "목회자는 회중을 섬긴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회중의 모든 사람이 공식 사역의 틀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할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사람들을 섬기지만, 그것은 그 단어를 수위 아래로 평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은 이끌어야 합니다. 이제, 최악의 영역에서 리더십에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매우 빨리 악화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타나야 합니다. 그들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경청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밀어붙여야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육 과정입니다. 즉, 신이 정한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이 정했다고 말하거나, 심지어 교회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졌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망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디모데전서 3장에 따르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싶은지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음, 저는 사역을 원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선한 일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음,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당신의 바람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말해줍니다. 당신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싶은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것이 커뮤니티의 힘이지만, 그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커뮤니티여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관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 밖에 서서 당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할 수 있지만, 당신이 원하는지 말해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미국 기독교의 사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방식은 이 은사의 문제를 끔찍하게 남용했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우리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사역 맥락 내에서 교회의 인정입니다.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묻지 마십시오.

그냥 바쁘게 지내세요. 뭔가를 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세요. 신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심지어 사업 세계에서 그렇게 됩니다. 당신은 그 큰 건물에서 남자로 시작하고, 당신의 재능과 성실함은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활동과 책임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당신은 원할 수 있지만, 교회는 평가를 통해 임명합니다.

그것은 은사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183페이지의 다음 강의로 돌아가서, 특히 바울이 몇 가지 수정을 해야 하는 맥락에서, 본문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28강, 고린도전서 12-14, 영적 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2-14에 대한 서론입니다.

